

물러마티니 프리마 C130의 놀라운 생산성 Joubert Imprimeurs사 1일 41종류 작업 신기록

프랑스 니스 인근 코트다쥐르 지역에 위치한 Joubert Imprimeurs사는 대학에 납품할 책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가족경영회사인 이 업체는 2011년에 도입한 물러마티니의 프리메라 C130 중철기를 통해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하루에 41가지의 서로 다른 작업을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자료제공 | 물러마티니코리아

프랑스의 코트다쥐르 지역에서 7월과 8월은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로 여겨진다. 대략 1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리비에라 해안 지방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는 가운데, 아이반 주베르씨와 니콜라스 주베르씨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작업에 몰두하며 여름을 보낸다. Joubert Imprimeurs사의 두 형제는 한여름 동안에도 완전한 가동 속도로 인쇄기와 인쇄 후가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두 형제의 아버지인 베르나드 주베르씨가 1980년에 설립한 가족 경영 회사는 최근 15년 동안 대학교의 가을 학기에 필요한 책자를 생산하기 위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작업을 소화한다.

평균 880부... 잦은 작업전환 필수

Joubert Imprimeurs사는 프랑스 전역의 1100여 개의 대학에 납품할 책자를 생산하는 전문 인쇄사다. Joubert Imprimeurs사

의 작업물에는 교지는 물론이고 학교 안내서나 학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수업 시간표, 학부모 알림장, 조퇴나 결석 처리 등의 학칙에 대한 안내문 등과 같은 학교 및 학생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인쇄물이 포함된다. 복잡한 형식을 띤 교지는 주로 A5 이상의 크기로 매년 1백만 부 이상 생산한다. 특히 인쇄물에 따라 적용하는 색깔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단이나 천공 작업을 비롯한 각종 후가공 공정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이뤄진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쇄와 인쇄 후가공 양쪽 모두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 커버도 작업하고 있다. 게다가 제일 까다로운 철심 4개를 박는 중철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평균 생산량은 880부에 불과하다. 이는 작업전환을 적절한 때 자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인쇄사는 41가지의 서로 다른 작업을 하루에 진행한 기록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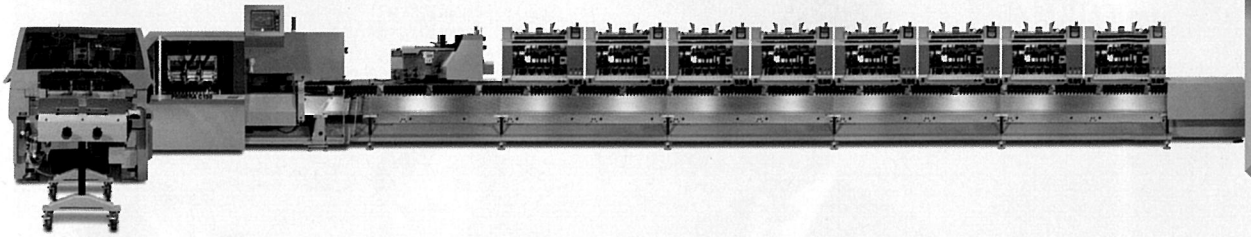
〈Joubert Imprimeurs 사 작업 교재〉

- ▶공급 대학 수 : 1100개
- ▶연간 평균 생산량 : 100만 부
- ▶1일 최대 생산량(0) : 24,500부
- ▶작업당 평균 부수(0) : 880부
- ▶하루 작업 수(0) : 35개
- ▶하루 작업 수(최고 기록) : 41개

과거 8명 3교대였지만 지금은 5명 2교대로 충분

Joubert Imprimeurs사는 과거에는 8명 3교대 시스템으로 일했던 회사다. 그렇지만 지금은 5명 2교대 시스템으로도 작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Joubert Imprimeurs사는 원래 다른 브랜드의 기계를 사용했었지만, 2011년 봄에 물러마티니의 프리메라 C130 중철기를 도입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났다. 프리메라 중철기는 플랫 파일 피더 6대, 커버 피버 1대, 아플로



스태커 1대, 화면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1대로 구성돼 있다. 프리메라 중철기를 잘 다루는 Joubert Imprimeurs사의 아이반 주베르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기종과 함께 기계를 가동할 때도 생산성은 물론이고, 품질 면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프리메라를 도입하기 전에는 가장 성수기인 8월에 중철 작업을 하려면 3교대로 8명의 직원이 일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출판 부수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직원이 2교대로 작업해도 충분하다. 또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구형 중철기로 생산할 때는 800부에 10개 정도로 고객들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뮐러마티니의 새로운 중철기인 프리메라를 도입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Joubert씨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까지 모든 가족이 인쇄 산업에서 활동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품질과 높은 생산성이었다. 그들은 항상 “높은 생산속도를 통해 관련 서적을 신뢰성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밝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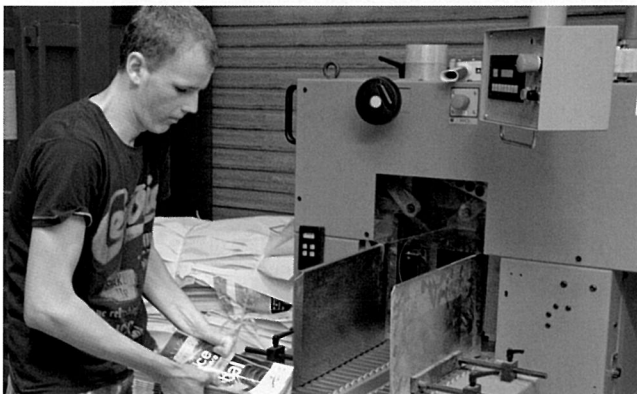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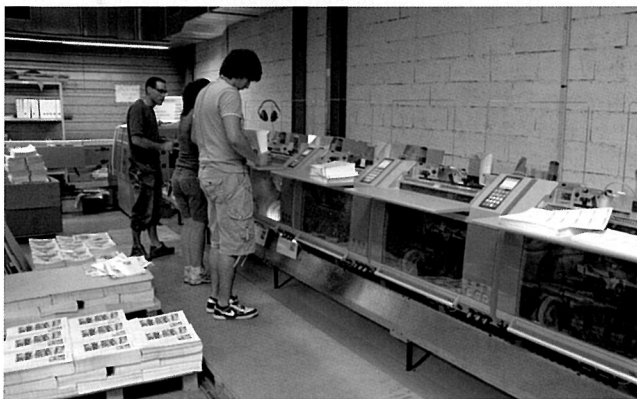
프리메라 없이 성공 어려운 작업량

뮐러마티니의 프리메라 중철기를 도입한 후 Joubert사장은 종종 “프리메라가 없었다면 결코 그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메라 중철기와 함께 성수기인 8월에는 24명의 정직원과는 별도로 6명의 임시직원

을 고용해 평소 매출보다 3배나 많은 교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수기인 여름 기간에는 주로 교지 작업만 담당한다. 이외 기간에는 브로슈어, 팸플릿, 전단지, 공문서, 캘린더,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제약의 설명서 및 패키지 등을 작업한다. 이러한 종류의 인쇄물량은 300부에서 40만부에 이르는데, 평균적으로는 5000부 정도다.

신형 중철기의 수준 높은 자동화는 이러한 인쇄물의 작업에도 매우 유용하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프리메라 중철기는 위와 같은 인쇄물에는 다소 과할 정도의 작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성수기일 때만고는 고성능 기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실제로 프리메라가 없었다면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Joubert Imprimeurs사는 과거에는 8명 3교대 시스템으로 일했던 회사다. 그렇지만 지금은 5명 2교대 시스템으로도 작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